

## 서로 돕는 동반자로 함께 매진

### 「레이건」 대통령 주최 오찬 답사

1981년 2월 2일

대통령 각하, 영부인,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 내외를 위해 오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취임하신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내외를 방미토록 초청해 주신 배려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각하께서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귀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신 데 대해 한국 국민을 대신하여 거듭 경하의 뜻을 표하고자 하며, 앞으로 각하의 영도하에 미국이 각하께서 제창하신 국가재건의 새 시대를 추구함에 있어서 신의 가호아래 위대한 성공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실은 공교롭게도 우리 나라에서도 금년은 「새 시대」가 열리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치적 경직성과 극한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적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국가적 정력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두 나라가 모두 「새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미 두 나라는 내년이면 수교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두 나라는 각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의 북한 남침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피를 흘렸고, 전후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도 너그럽게 원조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사회 각분야에 걸쳐 힘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무역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2번째의 교역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제공한 미국의 도움은 헛되지 않았으며 한국은 이제 세계인류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는 미국 국민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위대한 미국을 향한 전진을 영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각하의 이러한 철학이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두 나라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80년대에 서로 신뢰하고 돕는 성숙한 동반자로서 함께 매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건」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미국의 번영, 그리고 한·미양국간의 굳건한 우의를 위하여 축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체 안전에 기여

한·미정상회담 소감

1981년 2월 2일

존경하는 「레이건」대통령 각하와 「낸시」여사의 초청을 받고 본인과 본인 내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레이건」대통령과 본인은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레이건」대통령 각하께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를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전체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고 자유세계 지도국인 미국의 영도자로서 「레이건」대통령 각하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